

지배구조 - 이사회 중심 경영

SK이노베이션은 SKMS를 근간으로 한 시스템 경영의 정점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중심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회 중심 경영이란 ‘이사회를 이사회답게 운영하는 것’으로 주주 이익이 균형적으로 반영되고, 올바르게 투명한 의사결정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와 CEO는 상호 협력하고, 책임을 공유하면서 회사의 혁신과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독립성 확보

SK이노베이션의 이사회는 견제와 균형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전체 이사 중 62.5%인 5명의 사외이사와 3명의 사내이사, 총 8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산하 6개의 모든 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각 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감사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 함으로써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독립성과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진 현황

2016년 6월 기준

사내 이사



김창곤
 현) SK SUPEX추구협의회 의장 겸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장
 현)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 인사위원회 위원



정철길
 현) SK SUPEX추구협의회 에너지화학위원회 위원장
 현)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부회장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전략위원회 위원



유정준
 현) SK SUPEX추구협의회 Global성장위원회 위원장
 현) SK E&S 대표이사 사장
 >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사외 이사



김대기
 현) KDI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감사위원회 대표감사위원
 > 전략위원회 위원
 >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신언
 전) 주 파키스탄대사관 대사
 전) 파키스탄 KSP 정책 자문단 수석고문 및 단장
 > 인사위원회 위원장
 >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한민희
 현) KAIST 경영대학 교수
 전) 한국 마케팅학회 회장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감사위원회 위원
 > 사회공헌위원회 위원



김준
 현) ㈜경방 대표이사 회장
 현) 대한방직협회 회장
 > 전략위원회 위원장
 > 감사위원회 위원
 > 인사위원회 위원



하윤경
 현) 홍익대 공과대학 기초과학과 교수
 현) 대한화학회 화학올림피아드 위원회 위원장
 >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
 > 사회공헌위원회 위원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 현황

2016년 6월 기준

위원회	사외이사 비율	주요 역할
감사	100%	이사에 대한 직무 감사 및 회계, 경영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등
사외이사후보추천	67%	사외이사 후보 Pool 발굴·관리 및 후보 추천 등
전략	67%	중단기 경영계획 및 전략 검토, 주요 투자 및 기획 관련 사항 검토 등
인사	67%	주요 인력관리 정책 검토 및 사내이사 후보 추천 등
투명경영	67%	계열사간 거래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검토 등
사회공헌	100%	사회공헌 활동 및 회사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sue 점검 등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이사회 운영

체계적인 이사회 회의 운영

매월 4번째 금요일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진이 안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이사회는 개최 최소 5일 전, 산하위원회 개최 최소 2일 전에 안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모여 신속하게 의사결정함으로써 투명한 경영 활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이사회가 총 14회, 산하 위원회가 총 21회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검토

대규모 전략적 투자, 분사 및 합병 등 회사의 중요 사항은 이사회에 사전 보고되어 이사들의 토의를 거친 뒤 피드백이 전달되며, 이후 별도 이사회에서 해당 안전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대표적으로 페루 가스 수송 법인(TgP) 지분 매각 건과, 리튬 이온 전지 분리막(LiBS) 사업의 현황과 중장기 사업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영 계획 및 현황, 실적 보고

이사회는 매년 단기 및 중장기 전략(To-be Model)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석유·화학, 자동차 배터리 등 사업별 내·외부 환경과 특성에 기반한 활발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 수립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분기별 경영 실적 보고 시에는 계열 자회사의 경영 현안 Issue,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토록 하여 이사진이 회사의 경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경영 실천

SK이노베이션의 이사진은 매년 국내외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SK인천석유화학에서 현장 이사회를 개최하고, 울산 Nexlene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구성원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전략적 Communication Session 활성화

회사의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CEO를 비롯한 주요 경영층과 사외이사 참여하는 전략적 Communication Session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영철학 및 비전, 전략(Strategic Fit), 애로 사항뿐만 아니라 소통 과정에서 부각되는 주제를 추가로 선정하여 자유롭게 논의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글로벌 석유산업 현황 및 시사점, SK이노베이션 계열 각 사업의 중기 경영전략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사회 성과평가 및 보상

매년 이사회 구성, 기능, 책임,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이사회 운영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이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한 보상을 위해 인사위원회에서는 이사 보수 한도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이사 활동을 위해 사외이사들은 국내외 지배구조 및 사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기업지배구조 양대 기구인 NACD^(주1)와 ICGN^(주2)의 컨퍼런스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글로벌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세계 우수 기업의 경영진 및 이사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입 사외이사에 대한 분사 및 지방 사업장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1) NACD : National Association of Corporate Directors
(주2) ICGN :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이사회 활동 전문성 향상